



함께 성장하는 스승의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친구들과 함께 기차여행 떠나요

※ 이 사례는 이향순 경북 영주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영주중에서는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중 Wee클래스는 '아름다운 말·생각·마음·동행'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급별로 콩나물을 나눠주고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며 키우게 한 뒤, 콩나물을 가장 잘 길러낸 학급에 상을 주는 '넌 예뵐! 콩나물 키우기 대회'나, 학생들이 직접 아름다운 교정을 만드는 '학교 벽화 그리기', 친구를 초대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Wee클래스 친친'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요. 이런 상담 사례들 덕분에 영주중 Wee클래스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제6회 Wee 희망대상'에서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주중 Wee클래스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감성 바다 愛(애) 기차여행'입니다. 학생들은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고, 바다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심리적인 안정도 얻습니다.

### 여행으로 '힐링'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워

이 프로그램은 Wee클래스, 교내 복지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운영됐습니다. 주요 대상학생은 Wee클래스에 소속된 또래상담동아리 학생들, Wee클래스 내담학생들, 특수교육대상·복지지원대상 학생들이지만 이외에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50여 명의 학생들은 기차 한 칸을 통째로 빌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필 '기차'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차는 기차를 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설렘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지요. 4~6명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기차 한 칸을 통째로 빌린 것도 학생들이 다른 승객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은 기차 안에서 세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낱말 찾기'에 참여했습니다. 6명 내외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주어진 자음과 모음들 사이에서 낱말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가령 자음 'ㄷ' 'ㄴ' 'ㄱ'와 모음 'ㅣ' 'ㅜ'를 찾아 '친구'라는 낱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이나 교우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낱말을 떠올리고 만들어봄으로써 긍정적인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 '사랑' '함께' '행복' '추억'……. 아름다운 낱말을 만드는 학생들의 얼굴에도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 '뽕튀기로 친구 얼굴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친밀감을 쌓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간식 접시 만들기 콘테스트'도 열었습니다. 과자, 과일 등의 식재료를 제공한

뒤 팀 별로 간식 접시를 꾸며보도록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식재료가 모여 하나의 간식 접시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되지요. 학생들은 옆 팀의 간식 접시를 본 뒤 ‘이렇게 해보라’며 조언을 해주고, 자기 팀원들과 협의하여 간식 접시를 더 예쁘게 바꿔보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동진에 도착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주는 바다와 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슴이 뻥 뚫린다”며 즐거워했지요.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타인을 받아들이기도 쉬워집니다. 좀 더 편안하게 서로를 친구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앞으로도 학생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친구와의 소통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연구회 ‘수체화’ “어려운 수학개념, 수학 체험활동으로 익혀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전대사대부중)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개념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매년 ‘교내 수학체험전(수학체험전)’을 개최한다. 전대사대부중의 우수영, 이미영, 조차미, 최진이 4명의 수학교사는 수학체험전 첫 행사가 끝난 후 더욱 알찬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동아리 ‘수체화(수학체험화이팅)’를 구성했다.

‘수체화’는 행사준비뿐만 아니라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호기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과제를 개발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수체화’를 이끄는 최진이 수학교사에게 교사동아리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묻고 들었다.

#### 체험활동 통해 수학개념 학습

‘수체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수학 체험전의 부스를 구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모임 시간에는 직접 기획한 수학 체험활동을 시연해보거나, 어떤 활동이 수학의 원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지 토론한다. 교사들은 미리 수학 체험활동을 경험해보므로써 해당 프로그램이 수업시간에 가르친 수학개념 중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파악해본다. 이렇듯 치밀한 사전계획은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7월 진행된 수학체험전에서는 정다면체의 원리를 이용해 조형등을 만드는 ‘아이큐라이트’, 쌍다면체를 직접 만들어보는 ‘72펜슬’ 등을 포함한 16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개념을 체험활동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 교사는 “학생들이 예술, 창작활동,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학개념을 직접 경험하며 실생활과 수학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수학에 자신감 없는 학생도 즐길 수 있는 수학수업

‘수체화’는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지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수학교과서 MIC(Mathematics In Context)와 CMP(Connected Mathematics Project)를 활용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교재는 단원명이 ‘연립방정식’과 같이 개념중심이라면, 미국의 교재는 ‘부모님과 캠핑을 떠나볼까요?’와 같이 실생활과 연관된 상황으로 단원명이 구성된다. 캠핑용품 구매, 숙소 예약, 야영장의 매출 등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수학개념을 이용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되는 것. 이러한 스토리 중심의 수학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수체화 교사들은 미국 수학 교과서를 참조해 학습지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교사들은 해당 교재의 예시를 활용한 학습지를 매 수업시간 제공함으로써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 모두가 수업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을 위해 두 지역이 갈등을 벌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통해 연립방정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보상금 문제, 미래 인구수와 세금, 도시 성장률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학생들은 한 가지 주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상황을 연립방정식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수학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자유롭게 풀이과정을 얘기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회복한다.

최 교사는 “모두에게 낯선 과제를 제공하니 정답을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동아리를 통해 개발한 학습지가 학생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mailto:songi121@donga.com)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mailto: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